

설교복기 요 20:19-23 평화-파송-성령-사죄

안녕하십니까? 평화 파송 성령 사죄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 단어 사이에 줄 표시를 했습니다. 저게 다 연결된다는 뜻으로 한 겁니다. 이 네 단어가 초기 그리스도교의 부활 경험에서 핵심적이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어디 뭐 저 네 단어만 이겠습니까? 예수의 재림도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따라서 4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평화 파송 성령 사죄 오늘 설교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집중 된다고보다 펼쳐진 방식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저런 설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첫째 평화 둘째 파송 셋째 성령 넷째 사죄 이렇게 쭉 늘어놓았어요. 그 사이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시키냐가 설교에서 중요했습니다. 그걸 염두에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나 거기에 긴밀하게 연결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로 평화가 중요해 파송이 중요해 성령이 중요해 사죄가 중요해 이렇게 하면 한 편의 설교로서는 바람직한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어 있고 방에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하죠. 어떻게 문을 닫아 걸었는데 들어옵니까? 혼령처럼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혼령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었다는 표현도 어딘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혼령하고는 다른데 오늘 본문 같은데 보면 혼령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을 닫아 걸었는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초입부분이거든요. 고 앞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주님 경험만 나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금방 이제 제자들 이야기로 넘어와요.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대한 경험도 물론 없었고요. 생각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시간표로 본다면 주일날 저녁이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식일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고정관념입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은 누가 그 사건을 신문기자가 탐사보도 하듯이 확인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 구약의 어느 구절에 근거하여 예수의 부활을 3일만에 라는 말과 연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교회 안의 자리를 잡게 되니 빈 무덤 이야기도 3일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했나요 안했나요? 바울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신앙이 성립되어 있을 때예요. 너희가 만일 내

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는 그 전해진 대로 그 복음의 확실성을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 여기 나오네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는 바울이 활동하기 전에 이미 아주 그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 성립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전해져 내려온 걸 그대로 여기에 적은 거예요.

1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받은 것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나는 바울은 비교적 초기에 부활의 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사흘 만에 즉 3일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했군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보다 먼저 이 말을 한 그 전승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구약의 어느 구절에 근거한 거예요. 제가 지금 구절이 정확하게 머리 속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직까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냥 그 시간표대로 따르다면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이 짧아요. 끝나고 다음 새벽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묘지에요. 그 동산에서 울고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막달라 마리아가 20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줄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곧이 곧대로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십자가의 처형당하고 무덤에 묻혀 장사 지냈던 자기네 선생이 문을 닫아 둔 그 장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걸 믿기 힘든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돼요.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그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정 사실로 전제하고, 그렇다면 이제 빈 무덤과 그리고 예수의 현현이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 전승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처음부터 딱 그렇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천천히 전승,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요. 거기에 붙을 건 붙고 떨어져 나갈까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형성됐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건들, 그리고 뭐 우여곡절이라고 한다면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도 이 네 곳 만이 아니잖아요. 많은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복음서도 있고 유명한 거로는 도마복음도 있고요 수많은 전승들이 문서화되어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이 전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전승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따라갈 순 없어요.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더 연구한 학자들은 알

조 거도 뭐 100프로 하는 건 아니고. 신학도 그 안에 분과가 많이 있고 같은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또 자기가 더 연구한 분야가 있거든요. 전승사라고 있습니다.

전승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부활전승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활이 처음부터 확정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먼저 성립된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 신앙 그 경험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빈 무덤과 부활의 현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과 부활의 현현 이야기는 부활 신앙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데서도 바로 며칠 전에 땅에 묻혔던 자기 스승 예수가 그 방에 나타나는데도 이 제자들이 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헛것을 본 거 아니야 이게 유령이야 뭐야 뭐지 당신 누구지 이러한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활 신앙은 이게 어딘가 근거가 희박하다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생각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실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냥 편하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그 성서 텍스트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는중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장애인들 예를 들었습니다. 장애인 문제 만도 아니죠. 한민족의 경우라고 한다면 남북분단체제의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게 이 평화 신학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국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가 남북분단체제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좀 불행한 거죠. 이걸 뭐 북한에 있는 놈들은 기독교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 김일성 세속 체제로 된 잘못된 나라이기 때문에 망해야지 우리가 도와야지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옳으냐 그러냐 정당하냐 아니냐 도덕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평화 질서를 세우냐 하는 겁니다. 그런 나쁜 놈들이야 물론 이제 북한 전체가 나쁘다 하는게 나쁘게 아니라 체제가 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일부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겠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누가 지금 제 정신 가진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걸 알지만 어떻게 남한과 북한의 분단체제를 극복하냐 하는 것을 찾아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평화신학에서 제가 보기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남북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것도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한두 마디로 끊어서 말하기는 힘듭니다. 중요한 건 해방 이후 이렇게 오랜 세월 남북분단체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남한 교회에 별로 없었다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였다 하는 것은 우리 후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북문제는 그거고 오늘은 장애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서 어느 시설에서 조용하게 어디서 사는 것, 가끔 그런 방문해서 그들 위로 하는 거 이런 정도로 장애인의 평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평화 문제는, 이걸 앞에서 소극적인 거를 얘기했는데 소극적인

게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인간의 인간다움 존엄성을 찾는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장애인 문제도 한국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다 거기다 쏟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장애인도 똑같이 비장애인들하고 마찬가지로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직 완전한 대답은 없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대답은 사실 못 했습니다. 이 문제만 아니라 인간은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에서 완전한 해결은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 찾아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찾아가는 나라가 있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은 나라도 있고 아니면 잘못 생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정답을 우리는 찾지 못했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평화가 분쟁 없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로 어려움 속에 떨어진 사람들이 실제로 존엄성을 찾게 해 준 거다 라는 거죠.

파송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너를 보낸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내가 예수님에게 파송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하는 걸 느끼고 산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차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그렇게 또 믿었다니까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이죠. 소명이죠. 소명의식이 있어야 보냄을 받았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21세기는 점점 더 탈소명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자꾸만 젊은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좋지 않긴 합니다만 눈에 보이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는 저런 현상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뭐 민족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북분단체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북한 이거 귀찮아. 재네들 생각하다가는 우리도 못 살아 생각하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더 깊이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개개인은 착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정신에 휩쓸리다 보면 자기의 생각마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소명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서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정말 인간다워지고 정말 굉장한 직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거죠. 그냥 그러한 일들을 제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소명 의식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이 직업을 루터도 그렇고 칼빈 칼뱅도 그렇고 직업을 소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구두수선공으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으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소명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청소하는 일을 통해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걸 소명감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 자체를 소명으로 느끼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현대의 일반적인 생각은 틀린 소명입니다. 불행한 거죠. 연봉이 얼마나 뭐 흔하

게 얘기하는 대로 연봉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거기서 편하게 할 수 있느냐 뭐 하여튼 그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저렇게 해서 행복 할 수 있을까요 결국 행복 해 보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바둑 속담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어요. 계속 머리를 돌리는데 결국 악수를 두는 거죠. 세상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별 수 있나 어쩔 수 없이 좀 그들과는 조금 덜 그렇게 그들보다는 좀 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해가 되긴 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보냄을 받았던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내가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 전할래. 그런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삶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럴 때 이제 행복한 거죠. 그걸 알게 되면 행복하죠.

독일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독일의 원전 폐기 이야기였어요. 탈원전 탈원전 말도 많습니다. 현재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로 비판하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원전을 다 막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접어두고 현재 상황에서 탈원전이 100프로 옳다 아니면 원전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점에서 더 옳다 끊어서 이야기 하기는 힘듭니다. 아직까지도 논쟁중이니깐요.

독일은 4월 15일 자정을 기해서 남아있던 3개의 원전도 다 잠가 버렸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제가 보기에는 대단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나라예요. 그동안 준비를 잘 했겠죠. 갑자기 원전을 닫으면 안 되잖아요. 전체 에너지 공급의 전기생산에서 뭐 기존의 뭐 가스로 한다거나 석탄으로 한다 그게 몇 프로 그리고 수력이 몇 프로, 자연 재생 에너지 몇프로, 원전이 몇 프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꾸준히 노력해서 원전의 비중을 뭐 10프로 8프로 이렇게 줄여 나가다가 이제는 다른 걸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완전히 닫아 버린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인데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해서 유럽에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결단하네요. 결단하고 그걸 실행하네요.

우리 나라가 됐으면 뭐 이거 말도 안됩니다. 아니 지금 그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이래 갖고 러시아에서 오는 그 가스값이 오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유럽에 있는 가정에서도 그 전기 요금 폭탄 뭐 가스 요금 폭탄 맞았다 야단인데 지금 원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돌려야 되지 않냐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쪽에서도 그래도 원래는 작년 말에 다 끊으려고 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몇 달 더 온 거죠. 이 상태로 몇 년 더 갈 수도 있었어요. 원자로를 더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4 월 15로 끝냈네요 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전이 우리나라에 24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면 예산으로 많든지 예상외로 적네 생각이 드십니까? 인도는 22 개예요. 우리나라보다 땅이 33배 크고 인구는 14억인 인도보다 우리가 좀 더 많습니다. 일본은 좀 더 많아요.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52개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원전을 돌리고

있는 나라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 나라예요. 아주 적게 돌리는 나라 도 있습니다. 적게 원전이 아주 숫자가 적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33 개 나라의 4337 개인데 미국이 미국이 92개 제일 많습니다. 프랑스가 56 기 중국이 55 러시아가 37, 일본이 33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섯 번째군요. 24개이예요. 영국도 아주 적습니다. 숫자가. 그들은 이미 많이 있었던 원자를 폐기했어요. 거기기도 거의 탈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몇 기 없을걸요. 그리고 지금 원전을 짓고 있는 나라도 현재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습니다. 2022 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더 많아질 수도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도 거의 원전이 하나있나 두 개 있나 없는 상태 예요. 뭐 벨기에나 이런 나라도 거의 없구요. 우리나라가 24 미국이 92인데 땅덩이로 비교하자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밀집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땅덩이가 제가 여기서 너무 길게 얘기하죠. 백배 정도 큼니다. 우리 남한 땅에 비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남한보다 땅이 더 넓어요. 근데 남한만 놓고 볼 때는 백배 정도 되는데 원전 숫자는 네 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땅덩이에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원전이 많아 졌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이 33개 쯤아요. 땅덩이에 비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숫자가 적은 겁니다. 남북 간을 합쳐도 일본보다 땅이 적죠. 남한만 생각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많은 편이죠. 일본은 그 지진 대에 있는 땅이니까? 더 위험한데 왜 일본에 원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세계의 원전이 세계 여러 나라의 그렇게 많지 않고 밀집도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엄청나다 땅덩이에 비해 밀집도가 높은 것만이 아니라 남북한이 대치에 있으니까? 아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유사시에 북한이나 중국 미사일이 남한에 있는 원전에, 원전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북한에 핵무기만 문제가 아니라 남한에 있는 원전이 문제입니다. 전쟁 유사시에는요

참 그렇고 하여튼 원자로를 완전히 없애는 게 옳은지 아닌지의 판단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과감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만 하더라도 원전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비용도 다른 발전소에 못지 않다고 해요. 그 또 가장 큰 문제는 핵 쓰레기인가 그 처리 문제죠. 그거는 그냥은 안 없어져요 수십만 년 지나야 반감돼서 안전한데 완전 다 끝나면 핵폐기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 땅에 묻어야 되는데 그 어디에다 묻을지 참 어떻게 풀까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어려운 숙제를 남기는 거죠.

근데 그래도 원전이 값싸게 클린 에너지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니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더 공론화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그것도 다시 탈원전으로 가려고 했던 정책을 다시 원상 복귀 해 버리네요. 딱합니다. 아무런 공론의 장을 펼치지도 않고 그렇게 해 버리네요.

로마 시대가 지금도 이어져요 초기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을 전제로 해서 신앙이 성립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를 전제하는 겁니다. 늘 제국 아래서 자기들의 신앙이 어떤 건지를 변증한 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제국을 빼 버리고 신약성경 읽으면 안돼요 제가 로마 제국을 완전히 악마화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로마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메리트가 뭔지는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련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붙였습니다. 이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봉이 높고 건강하고 미모가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받아도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의 사람의 영혼은 공허하다 라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대 현대인만이 아니라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제국의 메리트는 다 저게 있는거 아니니까? 연봉 건강 미모 재미에 오락 뭐 인기 끄는거를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 그렇게 어울려 사니까 필요한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의 생명 충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허한 거예요. 연봉에만 매달리면 계속 거기 이러면 마음이 가니까? 그걸로 인간이 만족이 안 되잖아요. 오락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여행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도 그렇고 계속 거기 매달려 보세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 한다니까요. 테니스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긴 합니다만은 신학과 테니스, 육체로 하는 것은 테니스 영으로 하는 것은 신학, 이렇게 신앙과 육체 운동인 테니스 두개를 거의 구도적으로 했어요. 이 두가지는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하나로서 인간이 되잖아요. 보라애들 라보라라고 하는 라틴어 수도원 슬로건이 있는 것처럼 기도와 노동, 영혼과 육체가 같이 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냥 제 변명 비슷하게 얘기하면 내가 수도원 수도자처럼 테니스를 쳤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노동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테니스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재미예요. 그게 오히려 그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짜증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테니스쳐서 지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잠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테니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옆에 파트너가 있는데 아 왜 그렇게 치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잔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거로 영혼이 자유로워지지않아요.

아무리 미모가 있다고 한들 그거 뭐 매달려 봤자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라 기보다도 중요하죠. 여성분들에겐 특별히 중요하긴 한데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걸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도 아니예요. 거기에만 몰입하면 죽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 경험이 뭐냐 라고 하는 걸 설명

한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부활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는 하여튼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를 이렇게 살아있던 상태로 돌아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살아난 것 다시 사는 것 그런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평화 파송 성령 그리고 사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경험한 거 그 경험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자칫하면 정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 같네 이렇게 들릴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운명안에서요. 그래서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차원에서 경험한 겁니다. 이제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거였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요 오늘 주일 저녁에 녹화를 했는데 비가 하루 종일 오네요. 내일도 온다고 하죠. 늦봄 비가 오는 평화로운 절기입니다. 연휴 이기도 하고요 내일까지 대체 공일로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